

# 안봉려관과 근대 제주불교의 중흥

한 금순 \*

## • 목 차 •

- I. 머리말
- II. 개항기 제주불교와 안봉려관의 출가
  - 1. 개항기 제주불교
  - 2. 안봉려관의 출가
- III. 안봉려관의 제주불교 활동
  - 1. 관음사 창건
  - 2. 안봉려관의 제주불교 활동
- IV. 관음사와 근대 제주불교
- V. 맺음말

---

1) 제주대 문학박사 한국사 전공.

### 【 요약문 】

1908년 관음사를 창건한 안봉려관은 일제강점기 제주불교의 항일이력으로 인한 일제의 통제를 이겨내고 1930년대에 이르러 제주불교 인물들의 주도적 활동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이다. 1907년 대흥사에서 출가한 안봉려관은 1908년 제주도로 내려와 운대사인 김석윤에게서 가사를 전수 받는 등의 도움을 받으며 관음사를 창건하였다. 1910년 용화사에서 안거 중이던 김석윤과의 인연으로 용화사의 영봉화상과 안도월이 용화사의 불상과 탕화를 관음사로 이운 봉안하여 관음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이 결행됨으로 인해 관음사는 1930년까지 일제의 통제를 받게 되고 안봉려관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무단한 노력을 하게 된다. 1924년 일제의 문화정치의 일환으로 종교활동이 관리되면서 제주불교협회가 결성된다. 안봉려관은 제주불교포교당을 신설하여 제주불교협회 활동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안봉려관과 관음사의 노력은 제주불교협회 활동의 중심이 되었고 그 노력에 힘입어 1930년대에 이르러 관음사는 제주불교를 주도하게 되었다. 안봉려관과 관음사의 노력은 곧 제주불교 활동의 근간이 되었다. 관음사는 불교활동은 물론 불교활동과 관련 없이도 제주도민들이 이용할 정도로 사회에 인식되어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안봉려관은 관음사를 창건하였다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아니라 근대 제주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운 인물로 조명할 가치가 충분한 제주불교사 더 나아가 제주도 역사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인물이다.

### 【 주제어 】

근대 제주불교의 중흥, 제주불교의 항일 이력, 안봉려관, 관음사 창건  
김석윤, 운 대사, 제주불교협회, 법정사 항일운동, 영봉 화상, 가사 전수

## I. 머리말

안봉려관은 1908년 관음사를 창건함으로써 근대 제주불교의 기틀을 마련한 승려로 제주불교사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다. 관음사는 이후 제주불교의 중심사찰로서의 역할을 맡아오고 있다. 안봉려관의 행적을 살펴보면 근대 제주불교가 활동해 나가는 모습을 살필 수 있다.

개항기 제주불교는 제주유림의 불교적 성향을 토대로 하여 유학의 전당에서 스승으로부터 불교경전을 공부한 김석운 등의 유학자의 출가를 이루어내고 있었다. 김석운은 안봉려관과 함께 관음사를 창건하였으며 제주불교의 항일의식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기도 한다. 창건 이후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 안봉려관은 관음사 활동을 주도하여 일제의 통제 속에서도 불교활동의 틀을 잡아나간다. 일제시대 동안 안봉려관의 활동은 곧 관음사의 활동이었고 관음사의 활동은 제주불교를 대표하는 활동이었다.

본고는 안봉려관의 출가에서 입적하기까지의 활동을 추적 정리하려 한다. 안봉려관을 조명하는 일은 근대 제주불교 활동의 기틀이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이다. 안봉려관의 출가와 관음사의 창건, 일제의 제주불교 통제 속에서 안간힘을 쓰는 관음사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제주불교의 근대 초기 활동에 대해 살피는 일이 될 것이다.

## II. 개항기 제주불교와 안봉려관의 출가

### 1. 개항기 제주불교

개항기 제주불교는 제주 유림에 지속되어온 불교적 성향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제주 유림은 제주도에 유배 온 학자들에게서 학문적 사상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었다.<sup>1)</sup> 제주 유림에 영향을 준 유배인으로는 김정희, 최익현, 김윤식, 박영효 등이 있다. 유배인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제주 유림의 제자들은 유배인들의 불교적 성향까지도 이어받았다. 제주 유림의 유학자들은 유교경전과 함께 불교경전을 읽고 신앙 행위를 이어나가고 있었다.

김정희는 제주에서 9년 동안(1840년~1848년)의 유배생활을 통해 제주 유림의 유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제자 이한진은 초의는 물론 그의 제자인 운백, 지월, 환송 등의 승려들과도 교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한진은 불교적 취향이 드러나는 20여 편의 글을 남기고 있어<sup>2)</sup> 유배인들이 학문적 사상적으로 제주도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 주고 있다.

개항기 제주에 유배되었던 최익현의 영향은 제주의병항쟁과 제주도 3·1운동 등의 항일운동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최익현의 사상을 이은 제주유림의 김석윤, 고승천 등은 제주의병항쟁으로 항일의 뜻을 모아내었으며, 최익현의 제자 김희정을 이은 조천의 유림들은 제주도의 3·1운동을 이끌어내는 구심점이 되기도 하였다.<sup>3)</sup>

1) 양진건, 「제주 유배인의 개화 교학활동 연구」, 『민족문화연구』20(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2) 이한진 저, 김영길 역, 『매계선생문집』(제주문화, 1998).

3) 김동진, 「제주인의 3·1 운동과 그 영향」, 『제주도사연구』창간호(제주도사연구회, 1991).

또한 개화사상가 김윤식, 박영효 등은 신학문과 개화사상을 통해 제주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김윤식은 제주도로 유배 와서 홍종시, 정병조 등의 제주 유림과 굴원 시회를 통해 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김윤식은 굴원 시회를 함께 하던 제주의 유생들과 석가탄신일을 기념하여 등을 매달고, 불교 경전을 함께 보거나, 나한상을 새로 모시면서 향과 꽃을 올리는 등의 직접적인 불교 신앙의 모습도 남겨놓고 있으며,<sup>4)</sup> 박영효는 홍종시, 김응전 등의 제주 유림과 교류하여 제주 사람들에게 개화사상을 전해주었다.

제주유림과 제주불교 인물인 김석윤은 고승천 등과 함께 제주의병항쟁을 일으켰다. 제주의병항쟁의 김석윤은 광양서재의 스승 김병규의 영향으로 승려로 출가한 제주 유림의 일원이다. 출가한 승려이면서도 다시 광양서재와 문귀사숙 교사와 훈장을 지내는 등으로 유림 활동을 계속하기도 하였다. 그의 문하생들도 제주 유림에서 활동하였다. 홍종시, 김종하, 최원순은 제주 유림의 일원으로 김윤식과 굴원 시회 활동을 함께 하였고 1920년대 제주불교협회 활동을 함께 하였다. 굴원 시회에서 김윤식과 함께 활동하였던 홍종시는 박영효와도 교류하였다. 유학자인 홍종시는 1924년 결성된 제주불교협회의 시회장으로 『관세음보살개금원문』<sup>5)</sup>에 이름을 남기고 있으며, 1925년에는 제주불교협회 포교당 건축비를 회사하기도 하는<sup>6)</sup> 등으로 제주불교협회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굴원 시회에는 제주유림의 11명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 중 김종하는 대정군수를 지낸 인물로 제주불교협회의 고문으로 활동하였으며, 조선총독부 판사이기도 했던 최원순도 제주불교협회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와 같은 제주유림의 불교적 성향은 제주불교의 명맥을 잇는 활동이었고 근대시대에 이르러 안봉려관은

4) 김윤식 저, 김익수 역, 『속음청사』(제주문화원, 1996), 80쪽, 105쪽, 189쪽.

5) 『관세음보살개금원문』(1925, 제주 관음사 소장).

6) 「제주불교 확장 등 기증자 제씨」, 『태일신보』(1926. 1. 20).

이러한 토대 위에서 제주불교의 중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개항기 제주도 출신의 출가 승려로는 1892년 출가한 강창규, 1894년 출가한 김석윤이 있다. 김석윤은 1908년 안봉려관을 도와 관음사를 창건하였으며 1909년 관음사 서무, 1911년에는 관음사 해월학원의 교사를 역임한 인물로 근대 제주불교 활동의 중심인물이다. 이들 출가 승려들은 이후 안봉려관의 관음사 창건과 관음사 초창기 활동의 중심 역할이 되어 근대 제주불교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 2. 안봉려관의 출가

안봉려관은 1907년 9월(혹은 12월 28일)에 전라남도 해남군 대흥사의 청봉(淸峯) 화상을 스승으로 계를 받아 승려가 되었다. 1865년 6월 14일 제주도 화북리 태생으로 42세에 출가하였다. 1908년 1월(혹은 5월) 제주도로 돌아와 관음사를 창건하여 활동하다 1938년 5월 29일에 입적하였다.

안봉려관의 출가는 『불교』 제71호에 백환양의 「한라산 순례기」<sup>7)</sup>, 이은상의 『탐라기행』<sup>8)</sup> 등에 기록되어 있다.<sup>9)</sup> 백환양은 「한라산 순례기」 중에 관음사 사적 소개에서 안봉려관의 출가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寺의 연혁을 물어보니 한 청년화상이 가사법복으로 인도하며 ... 이 절은 距今 20년 전에 開創되었으며 대흥사에 속한 말사이올시다. ... 일

7) 조선불교중앙교무원, 『불교』 제71호(1930).

8) 이은상, 『탐라기행』(조선일보사, 1937).

9) 안봉려관에 관한 자료로는 진원일의 「안봉려관스님」[『제주도지』제42집(1969. 12)]이 있다. 진원일의 기록은 다른 자료와 비교했을 때 안봉려관의 입적 연도가 틀리는 오류가 발견되고 있어서 안봉려관의 탄생 일자와 입적 날짜는 이회명의 기록을 택하였다. 이회명이 안봉려관과 같이 활동하였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오류가 적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한 비구니(속명 안명 봉녀관者)가 있어 距今 25년 전 (前韓 강희 원년 정미 12월 28일(필자 주 : 1907년)에 해남 대흥사에서 剃染하고 越明年 戊申(필자 주 : 1908년) 5월 初5일에 본도에 들어와서 小寺를 구하여 불상을 봉안하고<sup>10)</sup>

안봉려관은 1907년 12월 28일 대흥사에서 출가하였고 1908년 5월 5일 제주도로 돌아왔다고 한다.

이은상은 『탐라기행』에서 「봉려관의 관음사」를 통해 안봉려관의 출가를 기록해 놓았다.

#### 봉려관의 관음사

이 관음사는 봉려관이라는 비구니가 창건한 것인데, ... 정미년(필자 주: 1907년) 9월에(혹은 12월 28일을 말하기도 함) 출가의 뜻을 품고 해남 대흥사 晴峯화상에게 나아가 치발수계(髮受戒 : 머리를 깎고 계를 받음) 하고, 밝는 해(필자 주: 1908년) 정월(혹은 5월 5일이라고도 함)에 돌아와서 불법을 포교하려고 하였으나...<sup>11)</sup>

안봉려관은 1907년 9월(혹은 12월 28일)에 치발수계하였고 1908년 1월(혹은 5월 5일)에 제주도로 돌아왔다고 하였다.

안봉려관은 1938년 5월 29일에 입적하였다. 이회명이 안봉려관의 비석글로 지은 글에 기록되어 있다. 이회명은 1924년 제주불교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으로 제주불교 활동을 했으며 안봉려관과 함께 관음사 활동과 순회 포교 등을 하였던 인물이다.

#### 제주도 한라산 법화사 니사 봉려관 비명병서(碑銘并書)

比丘尼 蓬廬觀은 乙丑年 六月 十四日에 이 곳 禾北里 安氏의 집에서 出生하였다. ... 지난 戊寅年(필자 주: 1938년) 五月 二十九日은 道月선

10) 조선불교중앙교무원, 『불교』제71호(1930).

11) 이은상, 『탐라기행』(조선일보사, 1937).

사의 대상이었는데 蓬廬觀 比丘尼가 이어서 入寂하니 이는 아마 법화사의 일을 마쳐 속세의 원을 이룬 뒤 입적한 것이 아니겠는가?

<癸未年 七月 五日 晦明日昇 謹書><sup>12)</sup>

입적한 날짜에 대해 다른 기록이 있다. 진원일은 1937년 5월 26일에 입적하였다고<sup>13)</sup> 했으나 1938년에 입적한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안봉려관이 1937년 8월 30일 고산리 월성사 봉불식에 참석한 기록<sup>14)</sup>이 남아있기 때문이다.<sup>15)</sup>

안봉려관은 1907년 전라남도 해남 대흥사에서 청봉 화상에게서 계를 받아 출가하였다. 1908년 제주도로 돌아와 김석운과 함께 관음사를 창건하여 근대 제주불교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안봉려관의 출가로 제주불교는 김석운 강창규 등의 제주 승려들과 함께 근대시대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 III. 안봉려관의 제주불교 활동

#### 1. 관음사 창건

승려 안봉려관은 승려 김석운과 함께 1908년 관음사를 창건하였다. 관음사의 창건은 제주불교의 근대시대 활동을 세상에 선언하는 일이

12) 권태연 편역, 「제주도 한라산 법화사 니사 봉려관 비명병서(碑銘并書)」, 『회명문집』(도서출판 여래, 1991), 177~179쪽.

13) 진원일, 「안봉려관스님」, 『제주도지』제42집(1969. 12).

14) 「고산리 포교당의 봉불식」, 『불교시보』제27호(1937. 10. 1).

15) 진원일은 앞의 글에서 안봉려관의 탄생일을 1865년 2월 14일로 기록하였다. 필자는 입적 날짜에 오류가 있는 진원일의 기록을 피하고 이회명의 기록인 1865년 6월 14일을 채택하였다.



었다.

제주도 한라산 법화사 니사 봉려관 비명병서(碑銘并書)

比丘尼 蓬廬觀은 … 戊申年(필자 주: 1908년) 봄에 처음으로 觀音寺를 漢羅山 북쪽에 창건하니 비로서 佛法이 햇불처럼 섬 전체를 휘황하게 비추었다.<sup>16)</sup>

안봉려관은 출가 다음해 1908년 제주도로 돌아와 작은 사찰을 구하여 불상을 봉안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일즉 한 비구니(속명 안명 봉녀관者)가 있어 … 越明年 戊申(필자 주: 1908년) 5월 初5일에 본도에 들어와서 小寺를 구하여 불상을 봉안하고 4월 8일에 設齋慶讚할새 도민의 少見으로 怪異의 感을 가지고 드디어 亂을 지어 沮戲하며 심지어 봉녀관을 가해하려 하였다. 觀은 이에 몸을 피하여 한라산 절경에 올라 不食한지 7일 만에 가다가다 한 곳에 이르러 氣力이 없어 그만 엎더저 懸崖위에 걸렸었다. 홀연히 수천의 群鳥가 모여 衣裳을 물어내어 救護한 것이 한 기적이라 한다. 觀은 그 후로 여기에 관음사를 刱建하고 化衆에 勤勞하였다고.<sup>17)</sup>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설재(設齋)하려하였으나 도민들에게서 꾀박을 받았다. 이에 안봉려관은 한라산으로 올라가 기도하게 되었다.

동리 사람의 학대를 받아 갈 곳 업시 된 봉려암은 … 한라산중을 향하여 덩쳐 업시 드러가더니 이윽고 菱花봉「菱花峯」을 당도함의 … 빅록담 이라는 냇날 절터에 당도되얏는디 … 봉려암은 … 그곳에 머물너 잇서 만 칠일 동안에 먹지도 자지도 안코 열성으로 기도를 ㄹ얏더라. … 정신을 가다듬어 산천단이란 곳을 내려오니 맛참 충청도 계룡산

16) 권태연 편역, 「제주도 한라산 법화사 니사 봉려관 비명병서(碑銘并書)」, 『회명문집』(도서출판 여래, 1991), 177~179쪽.

17) 백환양, 「한라산 순례기」, 『불교』제71호(조선불교중앙교무원, 1930).

에 산다는 로승이 잇서 합장배례하며 말하되 ... 원컨데 이 가사를 바드소사 하고 가사를 드리며 다시 부탁하는 말이 이를 가지시고 자중주의 형사와 큰 사업을 성취하소서 하더니 홀연히 절하고 물너가 버렸더라.<sup>18)</sup>

한라산 능화봉 인근 옛 절터에서 안봉려관은 칠일동안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한 노사의 인도로 산천단으로 가게 되었다. 안봉려관은 산천단에서 운대사를 만나 가사를 받게 되었다. 안봉려관의 관음사 창건은 1908년 한라산에서의 칠일기도와 운대사로부터의 가사전수가 그 기틀이 되었다.

밝는 해(필자 주: 1908년) 정월(혹은 5월 5일이라고도 함)에 돌아와서 불법을 포교하려고 하였으나, 도민 일반의 껍박이 극심하여 드디어 그야말로 「天地無家客 東西未定巢」의 몸이 되었다. 할 수 없이 그는 한라산 백록담으로 몸을 숨기고 7일이나 絶食하다 ... 문득 한 老師가 나타나 「저 산천단으로 내려가라」 하므로, 다시 발심하여 산천단으로 내려왔더니, 雲大師라는 異僧이 있어서 「오래 기다렸더니 이제야 본다」 하며 가사 한 벌을 내어주었다. 다시 밝는 해(필자 주: 1909년)에 마을에서 구재(鳩財: 재물을 걷어 모음)하여 草庵 수 칸을 이루었다가, ... 밝는 해(필자 주: 1912년) 4월에 돌을 던지는 폭행에도 상처가 없는 기적으로 인하여 드디어 복종하게 되니 여기다 관음사를 이룩하게 된 것이라 함이 이 절의 창건 삼화이다.(관음사 사적기)<sup>19)</sup>

안봉려관은 1908년 한라산 능화봉 옛 절터에서 칠일기도 후 운대사에게 가사를 전수받고 관음사를 창건하였다.

안봉려관에게 가사를 전수한 운대사는 김석윤일 가능성이 크다.<sup>20)</sup>

18) 「제주도 아미산 봉려암의 기적」, 『매일신보』(1918. 3. 2~3. 3).

19) 이은상, 『탐라기행』(조선일보사, 1937).

20) 한금순, 『근대 제주불교사 연구』(제주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0), 17~24쪽.

김석윤은 1894년 출가하여 상운(祥雲)이라는 법호로 관음사 창건 이전에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김석윤은 안봉려관과 함께 관음사를 창건하고 1909년 제주의병항쟁에서 의병장으로 활동하였다. 김석윤의 항일 행적은 관음사 및 제주불교 활동에서 그를 배제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김석윤의 행적은 관음사마저도 일제의 감시대상이 되게 하는 것이어서 김석윤은 이후 관음사 기록에서 금기 인물이 되어버렸다. 김석윤 한 사람 만이 아니라 관음사에는 법정사 항일운동의 주역인 김연일과 강창규 방동화 등이 활동하였다. 이들은 모두 박만하라는 스승으로 연결된 항일인사들이다. 이들로 인해 관음사와 관음사 인물들은 일제의 감시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관음사는 김석윤과의 인연을 부정해야하는 일제강점기를 견딜 수밖에 없었다.

안봉려관의 관음사 창건 기록에 등장하는 승운대사 혹은 운대사라는 인물을 추적해보면 승운대사가 곧 김석윤임을 알 수 있다.

『회명문집』의 「제주 한라산 관음사 법당 중건 상량문」에는 안봉려관이 산천단에서 계룡산의 승운대사에게 법의를 전수 받았다고 하였다.

그것은 봉여관 비구니가 세운 산천단에서 계룡산의 승운 대사가 기도하던 가운데 무신년 (필자 주: 1908년) 오월 단오날에 법의 한 벌을 전수하여 받은 일과 또는 봉여관 비구니가 만들었던 산천단에 담양에 사는 청신녀 성정각이 두 번째로 기도하던 중에 임신년 오월 단오날에 또 가사(袈裟) 한 벌을 받은 것이다. 한 분은 무신년이고 한 분은 임신년이고 보니 같은 갑년(甲年) 같은 오월 단오날에 같은 곳인 봉여관 비구니가 지은 산천단에 같은 부처님의 법의를 같이 받은 것이니 얼마나 기이한 인연인가.<sup>21)</sup>

21) 권태연 편역, 「제주 한라산 관음사 법당 중건 상량문」, 『회명문집』 (도서출판 여래, 1991), 88~91쪽.

또한 이은상도 『탐라기행』에서 「관음사 사적기」를 인용하여 안봉려관이 운대사에게 가사를 받았다고 하고 있다.

그는 한라산 백록담으로 몸을 숨기고 7일이나 절식(絶食)하다 현애(懸崖)에 떨어졌더니, 이상하게도 수천의 갈가마귀 떼가 의상을 몰어 구출하니, 문득 한 노사(老師)가 나타나 「저 산천단으로 내려가라」하므로, 다시 발심하여 산천단으로 내려왔더니, 운대사(雲大師)라는 이승(異僧)이 있어서 「오래 기다렸더니 이제야 본다」하며 가사 한 벌을 내어주었다. 다시 다음 해(필자 주 : 1909년)에 마을에서 구재(鳩財)(필자 주 : 재물을 걷어 모음)하여 초암(草庵) 수 칸을 이루었다가<sup>22)</sup>

이은상이 제주도를 여행하며 관음사 사적기를 보고 관음사를 창건한 내력을 옮겨놓고 있다. 안봉려관에게 운대사가 가사를 내어주었다고 하였다.

‘승운대사’ 또는 ‘운대사’로 표현된 이 사람은 상운(祥雲) 김석윤일 것으로 추정된다. 항일인사였던 김석윤과 거리를 두어야했던 일제강점기라는 상황이 관음사로서는 상운이라는 범명을 드러내놓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그러한 정황이 상운을 이승(異僧) 운대사(雲大師)라고 표현하게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도에서 관음사 창건 이전에 승려로 출가하여 활동하였던 제주인물은 김석윤과 강창규 정도만 현재 드러나고 있다. 김석윤은 1894년 출가하여 상운이라는 법호로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김석윤의 기록에는 안봉려관을 도와 관음사를 창건하였음이 나타난다. 안봉려관의 관음사 창건에는 승려 김석윤의 도움이 있었다. 『망형석성도인행록』에는 김석윤이 안봉려관을 도왔음이 기록되어 있다.

공은 본디 세상을 초탈하는 불교를 좋아하였다. 대구에서 돌아온 후

22) 이은상, 『탐라기행』 (조선일보사, 1937).

여승 봉려관과 함께 색수수(塞水葢) : 스 | 미텔)에 불사(佛舍)를 창건하였다. 남주(南州)의 사찰들은 이곳이 그 시초가 된다. 또 법정(法井)에 도량을 열었다. 모두 시사(施舍)가 있었다.<sup>23)</sup>

관음사 2대 주지 오이화의 『조사(弔詞)』에도 김석윤의 도움이 언급되었다.

봉려(蓬廬)가 절을 지을 때 공적을 이룬 자가 누구겠습니까. 표창하여 새길 적에도 공의 이름은 역시 뚜렷하였습니다.<sup>24)</sup>

김석윤은 안봉려관을 도와 관음사 창건에 기여하였다. 이들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김석윤은 관음사 창건에 공적을 이룬 사람임이 분명하지만 김석윤의 항일이력 때문에 관음사는 김석윤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뿐 아니라 김석윤과 안봉려관과의 인연은 계속하여 자료를 남기고 있다. 안봉려관이 관음사를 창건하고 나서 통영군 용화사의 불상과 탕화가 관음사에 봉안된다. 여기에도 김석윤의 역할이 있었다.

경술년(필자 주: 1910년)에 통영군 용화사에 가서 불상을 모셔다 법당에 앉혔고<sup>25)</sup>

용화사의 불상과 탕화는 영봉화상과 안도월 등이 가지고 왔다. 영

23) “公雅好佛氏之超脫 自大邱歸還後 從僧尼蓬廬觀 創佛舍於塞水葢(스 | 미텔) 南州寺刹此其濫觴也 又設道場於法井 皆有施舍.” (김석익, 『당형석성도인행록』(1949, 국립제주박물관 소장), 『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제주불교사연구회, 2002), 328~330쪽 재수록).

24) “公自遯世轉于仙佛 蓬廬創寺功績者誰 表彰之刻公諱亦著.” (오이화, 『조사(弔詞)』, 1949, 국립제주박물관 소장).

25) 김형식 저, 오문복 역, 「유(遊) 관음사기」, 『혁암산고』(북제주문화원, 2004), 279~280쪽.

봉화상과 안도월의 관음사 활동은 김석윤과의 인연을 근거로 하고 있다.

운대사(雲大師)라는 이승(異僧)이 있어서 「오래 기다렸더니 이제야 본다」하며 가사 한 벌을 내어주었다. 다시 다음 해(필자 주: 1909년)에 마을에서 구재(鳩財)(필자 주: 재물을 걷어 모음)하여 초암(草庵) 수 칸을 이루었다가, 또 다시 다음 해(필자 주: 1910년)에 영봉(靈峰) 화상과 안도월 처사 등이 육지에서 들어오면서 용화사의 불상과 각 탕화 등을 가지고 왔으므로 반가이 얻어 봉안하고,<sup>26)</sup>

1910년에 영봉 화상과 안도월이 용화사의 불상과 탕화를 가지고 와서 관음사에 봉안하였는데 이들 통영 용화사 인물이 제주도 관음사로 오게 되는 것은 바로 김석윤과의 인연 때문이었다. 우선 용화사에는 1910년 탕화불사가 있었다. 새로운 탕화를 조성하고 기존의 탕화는 관음사로 이운해 왔던 것임을 다음의 기록을 통하여 밝힐 수 있다.

용화사의 불상과 탕화가 관음사로 오게 된 인연은 현재 통영의 용화사와 법륜사 탕화에서 찾아낼 수 있다. 이들 탕화의 화기(畵記)를 통해 1910년에 영봉 화상이 용화사 탕화를 관음사로 가지고 오게 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용화사 도솔암 극락전 산신도의 화기이다.

隆熙 四年 庚戌 五月日 造成于 本寺 兜率庵 奉安于 極樂殿  
證明 廷協 誦呪 文學 慈憲 持殿 珙性 金魚 奇一 鐘頭 尙璘 供司  
應成 別座 翰洪  
都監 斗衍 化主 比丘尼 蓬廬觀  
災厄消滅福壽綿遠之願<sup>27)</sup>

26) 이은상, 『탐라기행』(조선일보사, 1937).

27) 지금은 통영 법륜사에 있다.

용화사 도솔암 극락전 산신도는 1910년(융희 4년) 5월에 조성하였는데, 도감은 두연, 화주는 비구니 봉려관으로 화기를 남기고 있다. 두연은 바로 영봉 화상이다.

다음은 현재 용화사 적묵당에 있는 감로탱화의 화기이다.

①上壇幀

隆熙四年 九月 十五日 造成于 本道 龍南郡  
彌勒山 龍華寺 藥師殿 仍爲奉安于 本殿

②緣化秩

證明 雪峰元奎 誦呪 圓明仁燁 持殿 首座桂成 金魚 片手明照 鐘頭  
沙彌景煥 總務 錦湖妙眞  
住職 石廣慧俊 書記 典秀 都監 永崑妙沄 供司 太根 化主 靈峯斗  
衍<sup>28)</sup>

이 감로탱화는 1910년(융희 4년) 9월에 조성하여 미륵산 용화사 약사전에 봉안하였는데 화주가 바로 영봉 두연 화상이었다.

용화사의 두 개의 탱화에서 영봉 화상과 안봉려관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개의 탱화에서 1910년 용화사에 큰 불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안봉려관과 영봉 화상이 화주가 되어 용화사에 새로운 탱화를 조성 봉안하였고, 기존 용화사의 탱화는 영봉 화상이 제주도 관음사로 옮겨 봉안하였던 것이다.

영봉 화상과 안봉려관의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김석윤과 연관이 있다. 김석윤은 1902년 용화사에서 이동운(李東雲)을 스승으로 하여 사교과를 수료하였고, 1910년에는 용화사 선원에서 안거하고 있었다.<sup>29)</sup> 김석윤은 1908년 관음사 창건에 참여한 후 1909년에는 관음사

28) 현재 통영 용화사에 있다. 제주불교사연구회, 『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2002), 348~349쪽 제수록.

29) 『교적부』(1947, 한국불교태고종 제주종무원 소장), 제주불교사연구회, 『근대 제주불교사 자료집』(2002), 214~215쪽 제수록.

서무에 취임하면서 같은 해 1909년 제주의병항쟁에서 의병장으로 활동하다 체포되었다. 감옥에서 풀려난 후 일제의 감시로 제주도에서 활동하기가 힘들게 되자 1910년 김석윤은 자신이 공부하던 용화사 선원으로 다시 돌아갔다. 용화사 불사가 있던 1910년 김석윤은 용화사에서 안거 중이었므로 김석윤이 안봉려관을 용화사와 인연 맺게 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김석윤의 관음사를 위한 활동은 이뿐만이 아니다. 김석윤은 1910년 이후 20년을 용화사 선원에서 안거하였다. 김석윤의 근거 사찰인 용화사는 김석윤의 스승인 박만하의 영향력이 있는 사찰이었다. 박만하는 1898년 용화사 아미타 구품도에 증명 비구로 이름을 남기고 있다.

大韓 光武 2年 戊戌 3月日 敬造于 本寺奉安 於本會 證明 比丘 性月 煩明 萬下勝林<sup>30)</sup>

용화사 아미타 구품도 증명 비구인 만하 승림은 박만하이다. 박만하는 김석윤의 스승이자 법정사 항일운동의 주역인 강창규 방동화의 스승이기도 하다. 김석윤의 스승인 박만하는 김석윤을 인연으로 관음사 활동을 하게 된다. 박만하는 1914년 관음사 1대 주지 안도월이 안봉려관을 도와 절을 짓고 있을 때 제주도에 내려와 관음사 활동에 공을 쌓았다. 관음사 2대 주지 오이화가 그 공적을 기리어 안봉려관과 안도월과 함께 관음사 조사전에 봉안하였다.<sup>31)</sup>

살펴본 바와 같이 용화사를 근거 사찰로 하고 있던 김석윤은 1910년 용화사 선원에서 안거 중이면서 안봉려관이 용화사 탕화 불사의

30) 현재 통영 법륜사에 있다.

31) 권태연 편역, 「한라산 관음사 조사전 창립 취지서」, 『희명문집』(도서출판 여래, 1991); 진원일, 「고대사찰과 아라리 관음사」, 『제주도지』제39집(1969. 7); 진원일, 「안봉려관 스님」, 『제주도지』제42집(1969. 1); 진원일, 「주장자 세 번 치니, 오이화 스님」, 『제주도지』제54집(1972. 5).



화주를 맡게 하는 인연이 되고, 용화사의 탕화와 불상을 영봉 화상으로 하여금 관음사로 가지고 가게 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안도월을 관음사로 데려와 차후 관음사 1대 주지로서 제주불교를 이끌어 가는 축으로 삼기도 하였다. 또한 스승인 박만하의 관음사 활동의 인연이 되기도 하였다.

김석윤은 안봉려관을 도와 관음사를 창건한 운대사이다. 그러나 제주의병항쟁 의병장이라 항일이력은 일제강점기 내내 김석윤을 일제의 감시대상이 되게 하였고 이 때문에 김석윤은 관음사와 제주불교에서 금기시하는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김석윤은 안봉려관 함께 법정사도 창건하였고,<sup>32)</sup> 김석윤과 함께 관음사 생활을 했던 강창규와 방동화가 뒤이어 법정사 항일운동의 주역이 되었기 때문에 김석윤이 제주도 활동을 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임에 틀림없다.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김석윤은 제주도에 돌아올 수 있었으나 항일의식은 여전하였고 일제의 감시로 공적인 활동은 여전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934년 월정암으로 제주도 활동을 다시 시작한 김석윤은 월정암을 1938년 선학원의 제주분원으로 제주선원 월정사를 창립시켰다. 사찰령을 거부하는 선학원의 제주분원 창립은 김석윤의 항일의식이 여전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리고 1938년 위봉사 제주 표선포교소를 설립하고 주지를 역임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불교활동 전면에 나설 수 없어 총독부에는 아들인 김성수를 설립자로 신고하기에 이른다.<sup>33)</sup> 이러한 모습은 바로 일제강점기를 살아야 했던 김석윤의 모습으로 관음사와 제주불교에서 김석윤의 역할이 금기시되게 한 이유이다.

관음사는 1908년 안봉려관의 한라산 기도와 김석윤의 가사 전수 등

32) 김석익, 『당형석성도인행록』(1949, 국립제주박물관 소장); 『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제주불교사연구회, 2002), 328~330쪽 제수록.

33) 불교시보사, 『불교시보』제39호(1938. 10. 1).

의 도움을 기반으로 창건하였다. 조천포의 옛 절 관음사 명의를 빌려와 이름 지었다.

寺下를 들어서니 좌우로 奇花異草가 紅白이 交雜하고 背後에 우거진 수림은 煙霞가 深銷하다. ... 관음사는 앞날 朝天浦에 있었으나 폐사가 오래이라. 그 名義만을 이동하여 온 것이다.<sup>34)</sup>

관음사는 1909년 마을에서 재물을 얻어 초암으로 법당을 마련하였고, 1910년에 영봉화상과 안도월이 용화사의 불상과 탱화를 가지고 와서 봉안함으로써 사찰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수백 인의 시주를 얻어 기유년(필자 주: 1909년) 봄에 이 절을 창건 하였습니다. 경술년(필자 주: 1910년)에 통영군 용화사에 가서 불상을 모셔다 법당에 앉혔고 병진년(필자 주: 1911년)에 서울에 가서 불경 수백 권을 구입하여 왔고 또 일본 대판에서 금종을 사온 뒤에 일체의 병발이 대략 완비되었습니다.”<sup>35)</sup>

관음사는 10년여의 활동으로 신도가 늘어 1918년에는 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법당을 새로 짓기로 하였으며 관음사 창건으로 불교활동이 관심을 얻기 시작하자 안봉려관은 법정산에 법돌사도 창건하였다.

제주도 아미산 관음사라는 절은 봉려관이라는 여승이 자기 한 사람의 힘으로 창조한 절인 바 그 뒤에 안도월을 주지로 삼아 전도에 종사하던 중 신도의 수효가 수백 명에 이르렀음으로 근자에 그 절의 규모

34) 백환양, 「한라산 순례기」, 『불교』제71호(조선불교중앙교무원, 1930), 34~35쪽.

35) 김형식 저, 오문복 역, 「유(遊) 관음사기」, 『혁암산고』(북제주문화원, 2004), 279~280쪽.

를 확장하기 위하여 법당을 새로이 짓기로 하였고 또 이왕에는 법정산 법돌사라는 절도 건설하였더라.<sup>36)</sup>

1930년에도 관음사는 초가였다. 금불인 석가존상을 봉안하였고 법당 앞에 종각과 수도실, 객실 등이 마련되어 있었다.

寺下를 들어서니 좌우로 奇花異草가 紅白이 交雜하고 背後에 우거진 수림은 煙霞가 深銷하다. ... 寺는 新건축으로 純全한 茅屋으로 된 淸楚한 新가람이다. 석가존상도 新조성한 金佛이다. ... 법당 直前으로 종각이며 좌우로 修道室이 정연하고 그 옆으로 住宅과 객실이 인접하며<sup>37)</sup>

안봉려관은 관음사 외에 법정사,<sup>38)</sup> 불탑사,<sup>39)</sup> 법화사,<sup>40)</sup> 월성사,<sup>41)</sup> 백련사<sup>42)</sup> 등의 창건에도 기여한다.

## 2. 안봉려관의 제주불교 활동

관음사의 창건은 세간에 근대 제주불교의 태동을 알리는 일이었다. 관음사의 활동은 곧 안봉려관의 활동이기도 하였다.

관음사에는 해월학원이 마련되어 있었다. 1913년에 이르러 드디어

36) 「제주도 아미산 봉려암의 기적」, 『매일신보』(1918. 3. 2~3. 3).

37) 백환양, 「한라산 순례기」, 『불교』제71호(조선불교중앙교무원, 1930), 34~35쪽.

38) 「제주도 아미산 봉려암의 기적」, 『매일신보』(1918. 3. 2~3. 3).

39) 『연혁철』(1951, 한국불교대교종 제주종무원 소장), 제주불교사연구회, 『근대 제주불교사 자료집』(2002), 269쪽 제수록.

40) 권태연 편역, 「제주도 한라산 법화사 니사 봉려관 비명병서(碑銘并書)」, 『회명문집』(도서출판 여래, 1991), 177~179쪽.

41) 「고산리포교당 봉불식」, 『불교시보』제27호(1937. 10).

42) 백련사는 안봉려관의 제자 현목련과 안봉려관이 함께 창건하였다고 증언되고 있다. 『조선총독부 관보』제5355호(142권, 75면) (1944. 12. 9)의 「포교소 설립자 변경 신고」에 현목련이 설립자로 기록되어 있다.

관음사에서 출가 승려를 배출하기에 이른다. 1913년에 방동화가, 1914년에는 오이화가 출가하였다. 이는 1911년 김석윤의 관음사 해월학원 교사 활동의 결과물이다.<sup>43)</sup>

일제는 1911년 사찰령으로 전국의 사찰을 30본산 체제 하에 두고 통제하였다. 관음사도 총독부에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였다. 관음사는 1918년 6월 11일 제주면 아라리 387번지에 대본산 대홍사 제주도포교당으로 포교소 설치가 허가되었다.

포교소 설립 허가

포교소 설립의 건을 허가한 것은 다음과 같음

허가년월일 : 1918년 6월 11일

포교소 명칭 : 대본산 대홍사 제주도포교당

포교소 소재지 : 전남 제주도 제주면 아라리 387<sup>44)</sup>

그리고 1918년 7월 19일 전남 대홍사 이화담(李華曇)을 포교담당자로 신고하였다.

포교담임자 신고

포교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해 포교담임자계를 제출한 사람은 다음과 같음

신고년월일 : 1918년 7월 19일

소속교종파 및 포교소 명칭 : 대본산 대홍사 제주도 포교당

소재지 : 전남 제주도 제주면 아라리

포교담임자 주소 :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포교담임자 이름: 李華曇<sup>45)</sup>

43) 『교적부』(1947, 한국불교태고종 제주종무원 소장), 제주불교사연구회, 『근대 제주불교사 자료집』(2002), 214~215쪽 제수록.

44) '포교소 설립 허가' 『조선총독부 관보』제1755호(35권, 143면) (1918. 6. 13).

45) '포교담임자 신고' 『조선총독부 관보』제1936호(38권, 238면) (1919. 1. 23).

제주도에는 사찰령에 의한 본사가 없었기 때문에 관음사는 대흥사 소속의 포교당으로 허가받았고 포교 담임자도 대흥사 주지인 이화담으로 신고하였다. 이는 안봉려관이 대흥사에서 출가하였던 인연에서 비롯된 것이다.

1918년 제주불교는 법정사 항일운동을 주도하였다.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은 일제에 항거하여 국권을 회복하겠다는 목적을 표명하며 제주도 도순리 법정사 승려들이 주도하고 인근 지역 주민 700여명이 참여한 항일운동이다. 법정사 항일운동에는 관음사에서 김석윤과 함께 활동하였던 강창규 방동화가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강창규와 방동화가 관음사에서 법정사로 옮겨간 것은 김석윤의 제주의병항쟁 이력으로 인해 관음사가 일제의 감시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법정사 항일운동은 관음사 창건으로 근대시대 활동을 시작하려던 제주불교를 일시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내내 제주불교는 일제의 적극적인 통제 속에서 활동해야만 하였다. 1918년 이후 제주불교는 1924년까지 공식적인 활동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있다. 사찰 설치 허가도 내주지 않았고 더욱이 관음사와 관련된 인물들의 활동도 적극 제한하였다.<sup>46)</sup> 1924년에 이르러서야 일제의 적극적인 종교계 개입 정책에 의해 제주불교협회를 결성함으로써 제주불교는 법정사 항일운동 이후 활동을 표면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30년에 가서야 관음사 주지 안도월이 관음사의 포교담임자로 허가되는<sup>47)</sup>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일제는 계속하여 제주불교의 항일이력을 주시하고 있으면서 관음사 인물들의 활동을 통제하였다.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 이후 관음사가 다시 제주불교 활동에 나설

46) 한금순, 『근대 제주불교사 연구』(제주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0), 109~111쪽.

47) '포교담임자 변경 신고' 『조선총독부 관보』제1048호(86권 664면), 1930년 7월 2일.

수 있었던 것은 안봉려관의 노력 때문이라 할 수 있다. 1924년 관음사 법당 낙성식이 있었다. 이 낙성식 상황을 살펴보면 안봉려관이 관음사 활동의 재개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관음사 낙성식에는 중앙불교의 대표인 이회광과 이회명이 초빙되었고 제주도지사의 축사가 낭독되었다. 이로써 일제는 항일이력의 제주불교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로 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일제의 문화정치라는 통치기조의 일환이기도 하다. 일제는 <조선 민족운동에 대한 대책>을 통해 “각종 종교단체에서 친일파가 최고 지도자가 되게 하고 일본인을 고문으로 앉혀 어용화 한다.”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관음사가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일제의 이러한 정책기조에 의한 것이기도 하였다.

#### 제주 관음사 낙성식

제주도 한라산에 설치된 관음사의 실황은 왕년 本報에 소개함과 같이 봉녀관씨의 열성과 안도월씨의 알선으로 多年 건축 중이던 법당은 이번에 낙성을 고평고 음력 4월 초파일 석가모니불의 탄생을 기념으로 성대히 낙성식을 개최한 바 廿船月씨의 개회식사가 있는 후 이회명씨의 불교 강연과 박영희씨의 역사 설명과 본사 대표 이사 車升玉씨로부터 창사의 내용 및 來歷을 상세 설명하고 마에다(前田) 島司의 대리로서 가토 히데조(加藤英造)씨가 출석하여 장래 확장에 대한 축사가 있어 관람자 남녀 합 만여 명에 달하여 자못 인산인해를 이루어 본도 開荒후 미증유의 대성황을 致.<sup>48)</sup>

관음사 낙성식에 참여한 이회광은 일본 정토종의 영향을 받아 설립된 불교연구회의 회장을 역임하였고 한국 최초의 근대적 불교 종단인 원종을 창설하고 초대 종정을 역임한 인물이다. 또한 1910년 일본 조동종과의 연합을 추진하는 등 친일 노선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48) 「제주 관음사 낙성식」, 『매일신보』(1924. 6. 4).

이회광은 이회명의 사형(師兄)이라는 인연으로 관음사 낙성식에 참여하였을 것이다. 이회명은 일제의 친일과 육성책으로 발족한 단체인 조선불교대회에서 설교사로서 활동한 인물이다. 이회광과 이회명이 경성에서 왔을 뿐 아니라 대흥사를 비롯하여 전국의 승려 30여명도 참석하였다.<sup>49)</sup> 관음사 1대 주지였던 안도월과 2대 주지인 오이화는 바로 이때 이회명에게 건당하여 법사(法嗣)와 법손(法孫)이 된다.<sup>50)</sup>

관음사 낙성식에는 만여 명의 제주도민도 참여하여 관음사 활동의 부활을 도왔다. 제주도민의 관심을 힘으로 관음사는 법당 낙성식 이후 곧바로 제주불교를 주도하는 활동을 이끌게 된다. 관음사 주지 안도월은 법당을 낙성하고 나서 2주간에 걸쳐 전도를 순회하며 포교활동을 벌였다.

#### 관음사 확장과 포교

제주도 관음사에서는 이미 낙성을 고하고 次第 寺運의 발전에 따라 포교 확장의 필요를 覺悟하고 當寺 주지 안도월 선생이 勇進的으로 지난 28일부터 약 2주간 전도를 순회하여 大多의 활동으로 포교 중인 바 지방에서도 환영하는 경향이 자못 期望을 따르리라더라.<sup>51)</sup>

이제 관음사는 법정사 항일운동으로 위축되었던 그간의 시기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에 이른다. 관음사는 제주불교협회 활동에 참여하여 제주불교 초유의 왕성한 활동의 시대를 맞이하기에 이른다.

제주불교협회는 일본인 제주도지사 마에다 요시쓰구(前田善次)가 주도하고 불교진흥·심신수양·지방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표방한 사

49) 권태연 편역, 『회명문집』(도서출판 여래, 1991), 363쪽.

50) “參坐證壇하야 寺任 안도월, 오한수, 兩師佐를 余之法嗣法孫으로 建幢設 旛하고 佛事云周하야 法筵告罷하니 釋迦佛聖誕辰日也.”[『조선불교』(1924. 7. 11)].

51) 「관음사 확장과 포교」, 『매일신보』(1924. 8. 31).

회단체였다. 제주불교협회장은 이회명이 맡았고, 승려보다는 주로 관직을 수행하는 인물과 제주도의 행정, 사법, 경제계 등의 인사들이 주로 참여하였다. 부회장 김태민은 조선총독부 의사, 총무 양홍기는 전라남도 도회 의원(道會 議員), 찬성부장 이윤희도 전라남도 도회 의원, 고문 김종하는 대정군수, 시회장 홍종시는 제주읍장을 역임한 제주도 인물들이다. 일본인 승려와 조선식산은행 지배인인 일본인 등이 고문으로 참여하였다. 승려는 4명이고 나머지 임원은 모두 사회인사로 구성된 제주불교협회는 관(官) 주도의 사회단체였다.

관음사의 안봉려관은 구제부장, 안도월은 포교부장, 오이화는 포교부 간사로 참여하였다. 이렇게 조직 구성상에서는 활동의 전면에 나서 지휘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으나 실질적으로 제주불교협회 활동을 주도해 나간 것은 안봉려관과 관음사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 제주불교의 興隆

조선 불교대회 법사 이회명씨는 當地 불교 〇설인 봉려관, 안도월 兩 화상의 의뢰로 지난 해에 입도하여 제1회 공립보통학교에서 불교 취지를 강연하였는데 박수갈채 중에 관민 有志의 환영을 得하여 을 조직하고 설립 후 불과 4, 5개월에 남녀 회원이 수천에 달하였으므로 當地 부호가 송석돈씨는 임시포교소를 무상대여하고 전 판사 양홍기씨는 자기 사무실에서 협회사무를 취급케 하고 교무를 확장키 위하여 봉려관, 안도월 兩 화상은 많은 경비를 들여 중심 시가지에 포교당을 신축하고 4월 28일 佛居를 점하여 낙성식 및 불교협회 정기총회를 개최코자 목하 준비 중인데 교당의 구조는 실로 굉장하여 내선인 중 와서 본 자가 봉려관의 철두철미로 多大사업은 말할 필요가 없고 또 이회명 법사의 진도 확장함으로 종래 無佛國이던 제주가 有佛國의 신세계를 이루겠다고 예측하는 중이라더라.<sup>52)</sup>

안봉려관과 안도월은 1925년 4월 제주시 이도리 1362번지에 제주불

52) 「제주불교의 흥륭」, 『매일신보』(1925. 4. 19).



교포교당을 신축하였다. 제주불교포교당이 관음사의 주도에 의하여 신축되었으나 불교협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실제적으로는 관음사가 제주불교협회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제주불교포교당에는 해남군 대흥사에서 관음존상을 가져다 1925년 음력 9월 24일부터 새로 개금하여 10월 초하루에 점안하여 다시 봉안하였다.<sup>53)</sup> 제주불교포교당에는 산제당(山祭堂)도 마련되어 있었고,<sup>54)</sup> 전기도 가설되어 있었다.<sup>55)</sup> 제주불교포교당은 제주불교협회 업무를 수행하던 중심지였다. 이곳에 제주불교협회, 불교부인회, 불교소녀단 간판을 달았다. 회원이 삼천 여 명에 달했고 동리별로 30여명의 대표를 두어 업무를 진행하였다. 이제 제주불교협회 활동은 관음사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운영되어가게 된다.

제주불교협회 활동을 위하여 제주도에 내려온 이회명은 관음사 주지 안도월과 안봉려관 등과 함께 순회 포교에 나서기도 하였다.<sup>56)</sup> 제주불교협회에서 활동하는 제주도 승려는 모두 관음사 승려들이다. 관음사는 법정사 항일운동 이후의 활동 침체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적극적으로 제주불교협회 활동에 참여하였고 실제적으로는 불교 활동을 주도하다시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제주불교협회 활동은 이후 사찰과 신도 수의 증가라는 제주불교의 외형적 성장과 함께 불교 신앙의 내실을 기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었다. 이로써 제주도내의 불교활동은 제주불교협회라는 관 주도의 사회단체를 통해 관음사가 주도하게 되었다.

안봉려관의 활동은 관음사를 넘어서 제주불교협회 활동을 통해 그

53) 『관세음보살개금원문』(1925, 관음사 소장).

54) 권태연 편역, 「제주포교당 산제당을 개기(開基)하면서 축원하는 글」, 『회명문집』(도서출판 여래, 1991), 57쪽.

55) 권태연 편역, 「제주교당 전기 장등(長燈) 축원서(序)」, 『회명문집』(도서출판 여래, 1991), 47~48쪽.

56) 「이선사(李禪師) 순회포교」, 『매일신보』(1925. 7. 1).

영향력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1930년에는 제주불교협회 활동으로 안봉려관이 주최하여 해상 조난자를 추도하는 수록재를 시행하였다.

제주불교협회 水陸齋 盛設 - 해상 조난자 追悼

제주불교협회에서는 봉려관의 주최로 本月 24일 오후 1시부터 해상 조난자 추도식을 당지 산지항에서 거행한 바 관민유지가 다수 참석하여 성황을 보이고 무사히 폐회하였다.<sup>57)</sup>

안봉려관이 주최하는 제주불교협회의 수록재에 관민 유지의 참여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안봉려관이 제주불교협회 활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었음을 말한다 하겠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제는 이전 관음사 인물들의 항일이력 즉 김석윤과 강창규 방동화의 항일운동 참여, 그리고 법정사 항일운동으로 인한 관음사에 대한 통제를 비로소 풀어주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 이후 일제가 관음사 인물의 활동을 통제 관리하고 있었음은 『조선총독부 관보』의 포교담당자 신고 현황을 통해 살필 수 있다. 관음사는 1918년 6월 11일 포교소 설치 신고 이후, 1918년 7월 19일 포교담임자로 대홍사의 이화담을 신고하였다.<sup>58)</sup> 포교담임자는 곧 사찰의 주지이다. 1922년에 대홍사의 주지가 백취운으로 바뀌면서 관음사의 포교담당자도 백취운으로 변경 신고 된다.<sup>59)</sup> 그리고 1925년 관음사의 포교담임자는 이회명으로 바뀌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이회명은 함경남도 안변군 석왕사 소속이었음에도 대홍사 제주포교소인 관음사의 포교담임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57) 「제주불교협회 수록재(水陸齋) 성설(盛設)」, 『매일신보』(1930. 12. 28).

58) '포교담임자 신고' 『조선총독부 관보』제1936호(38권, 238면), 1919년 1월 23일.

59) '포교담임자 변경 신고' 『조선총독부 관보』제3142호(56권, 368면), 1923년 2월 3일.

포교담임자 변경 신고

포교규칙 제10조에 의해 포교담임자 변경 신고를 제출한 자는 다음과 같음

신고년월일: 1925. 1. 14

소속교종파 및 포교소 명칭: 조선사찰 선교양종 대본산 대흥사 제주도 포교소

소재지: 전남 제주도 제주면 아라리 387

구포교담임자: 백취운

신포교담임자 주소: 함경남도 안변군 석왕사

이름: 이회명<sup>60)</sup>

관음사는 대흥사 소속 말사였기 때문에 관음사의 주지를 대신하여 대흥사 주지가 포교담임자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회명이 석왕사 소속이므로 그렇다면 관음사가 석왕사 말사가 되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일제는 석왕사 소속의 이회명을 대흥사 포교소인 관음사의 포교담임자로 허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회명은 1927년 제주도를 떠났는데도 계속하여 관음사의 포교담임자를 맡았다. 이는 관음사의 실제 주지를 총독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1930년에 가서야 관음사 주지 안도월이 관음사의 포교담임자로 허가되었다.

포교담당자 변경

신고일 : 1930. 4. 15

종파 및 포교소 : 선교양종 대본산 대흥사 제주도포교소

소재지 : 제주면 아라리 387번지

구담당자 : 李晦明

신담당자 :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대흥사 安道月<sup>61)</sup>

60) '포교담임자 변경 신고' 『조선총독부 관보』제3789호(65권 112면), 1925년 4월 6일.

61) '포교담임자 변경 신고' 『조선총독부 관보』제1048호(86권 664면), 1930년

일제는 관음사 인물들의 항일이력 때문에 관음사 인물들의 활동을 통제하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는데 1920년대 초반까지의 제주도 사찰 건립 현황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 이후 일제는 제주도 사찰을 더 이상 허가하지 않고 있었다. 조선총독부에 신고하여 허가된 사찰은 1918년 관음사 이후 6년여 동안 한군데도 없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제주도의 사찰은 1914년에 창건하여 활동하고 있던 불탑사,<sup>62)</sup> 1921년에 이회명의 동안거 설법 기록<sup>63)</sup>이 남아있는 법화사 그리고 1912년에 창건된 만덕사<sup>64)</sup> 등이 있었다.

제주도의 사찰은 1918년 관음사 이후 1924년에 이르러서야 원당사와 무관암이 사찰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1924년은 제주불교협회를 결성한 해이다. 여기에 주목해야 할 사항이 있다. 1924년에 신고한 2개의 사찰은 모두 백양사 포교소이다. 관음사는 대흥사 포교소였고 이미 창건되어 있었지만 허가를 받지 못한 불탑사와 법화사는 관음사의 안봉려관과 주지 안도월의 관리에 의해 건립된 사찰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에 백양사 포교소 2개소가 총독부의 허가를 받고 설치된 것이다. 이들 2개소의 사찰은 제주도 인물이 아닌 육지부의 포교사 하인월이 창건하였다.<sup>65)</sup> 하인월은 백양사 포교사로서 백양사 제주지부에서 제주불교 활동을 하고, 제자 송재술에게 원당사를 맡기고 떠난 후 더 이상 제주불교 활동을 하지 않는다.

관음사 인물들이 관여된 불탑사와 법화사가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관음사 출신의 법정사 활동 인물들의 항일이력 때문에

7월 2일.

62) 사찰문화연구원, 『제주의 사찰과 불교문화』전통사찰총서21(2006), 61쪽.

63) 제주불교사연구회, 『근대제주불교사 자료집』(2002), 195쪽.

64) 사찰문화연구원, 『제주의 사찰과 불교문화』전통사찰총서21(2006), 153쪽.

65) 「제주 원당포교소 신축낙성식」, 『불교시보』제20호(불교시보사, 1937. 3. 1), 8쪽.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법화사는 1926년 4월 22일 제주면 아라리 대홍사 포교당 산남출장소로, 불탑사는 1930년 3월 25일에 대홍사 제주포교소 불탑출장소로, 그리고 만덕사는 1933년 10월 10일에야 위봉사 제주도 회천리 포교당으로 신고할 수 있었다. 안도월이 중창한 법화사는<sup>66)</sup> 1926년에 포교소 설치를 허가 받았으나 포교담임자는 이회명이었다.

포교담임자 신고

신고일 : 1926년 4. 22

종파 및 포교소 명칭 : 조선사찰 제주도 제주면 아라리 대홍사 포교당 산남출장소

소재지 : 전남 제주도 좌면 하원리 법화동

주소: 전남 제주도 제주면 제주불교포교소

이름 : 이회명<sup>67)</sup>

대홍사 제주포교소 불탑출장소는 1930년 3월 25일에 신고되었다. 관음사가 1930년에 가서야 안도월을 포교담임자로 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는 1933년에야 위봉사 제주도 회천리 포교당으로 신고할 수 있었던 만덕사의 경우에서도 증명된다. 위봉사는 법정사 항일운동 주역인 강창규의 근거 사찰이었다. 김석윤도 위봉사 출신이다.

이렇게 일제는 항일운동과 관련이 있었던 관음사와 관음사 관련 인물들의 활동을 통제하고 있었다. 1924년에 이르러 일제의 문화정치라는 정책에 의해 제주불교 활동을 허락하면서도 중앙불교의 친일성향 승려 이회명에게 제주불교를 일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어

66) 권태연 편역, 「제주도 산남 법화사 도월선사 공덕 비명배서(碑銘拜書)」, 『회명문집』(도서출판 여래, 1991), 177쪽.

67) '포교담임자 신고' 『조선총독부 관보』제138호(73권 987면), 1927년 6월 16일.

려움 속에서도 안봉려관의 적극적인 활동이 결실을 맺어 1930년에 이르러 관음사와 관음사의 인물이 드디어 일제의 허가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안도월은 제주불교를 주도하였다. 1931년 안도월은 제주불교 임시대회를 개최하였다. 제주불교협회는 이회명이 제주도를 떠난 이후 활동이 부진해졌고 안도월은 제주불교협회 활동과 연계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제주불교 활성화를 들고 나왔다. 제주불교협회가 일제의 관(官) 주도의 사회단체로서 활동하였던 것과 달리 제주불교임시대회는 관음사의 안도월과 오일화가 주도한다.

제주불교 臨時大會 開催

제주불교 포교소의 중요 간부 안도월, 오일화 兩 법사의 斡旋으로 當地 포교사업을 일층 혁신코자 本月 29일 오후 1시에 임시 불교대회를 개최하여 포교사 안도월씨 사회로 當地 불교상황 및 회규를 낭독한 후 제반 사무를 협의키 위하여 임시 의장은 許應大씨로 선거하였다. 同 許應大씨는 衆望에 의하여서 議長席에 就하고 現下 불교의 退步됨을 叫喚하고 장래 敎務를 쇄신할 정신으로 제반 실행은 再次 대회에서 결정하기로 보류하였는데 협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 一. 신사업에 관한 건
- 二. 포교에 관한 건
- 三. 교육에 관한 건
- 四. 役員 선거에 관한 건
- 五. 當地에 있는 각 포교소 상황 조사에 관한 건<sup>68)</sup>

제주불교임시대회에서 안도월은 신사업으로 새로운 불교활동을 의논하였고, 포교와 교육 그리고 각 포교소 상황을 조사하도록 협의하였다. 이는 안도월 중심의 제주불교 인물들이 관(官) 주도의 제주불교협회 활동의 한계성을 뛰어넘어 사찰 고유의 활동을 의도할 수 있다

68) 「제주불교 임시대회 개최」, 『매일신보』(1931. 12. 6).

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936년 안도월이 입적하고 일제의 심전개발운동이 실시되면서 제주불교는 다시 일제가 주도하는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안봉려관은 1933년에 한라산에 제단을 중창하였다.

아, 고려 初期에 玉龍子 道說國師의 堪輿神訣에 의하여 名山勝地에 祭壇을 세움에 여기에도 제단을 세웠습니다. ... 漢拏山이 이처럼 이곳의 名山으로서 全島民이 이 祭壇에서 福을 받고 있습니다. 이 祭壇이 創設된 이래로 朝鮮의 현종 時代까지는 나라에서 祭物을 장만하여 祭祀를 지냈으나 近者에 이르러 飢饉이 앙키고 풀들이 길을 막았기에 靈祇들은 悲境에 빠짐에 섬 주민 또한 자연 곤궁한지라 이에 봉려관 比丘尼 스님은 원래 탐라국의 胎生으로 육십여덟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 제단을 중창하고서 나에게 緒言을 부탁한 바 나는 本來 문묵에는 어두우나 스님의 일이 심히 奇偉하기에 몇 줄로서 序文에 가름합니다.  
<癸酉年 늦은 봄에 씀><sup>69)</sup>

이는 산천단인 것으로 보인다. 고려 시대 이후 조선 현종까지 제를 지내던 곳이라 하였다. 산천단은 안봉려관이 출가 전 운대사를 만난 곳이며 여기에는 사찰 소림사가 있었다.

1936년에는 국상현의 시주로 관음사 대웅전을 개축하는 공사를 하였다.

국상현씨의 特志

진라남도 담양읍내 국상현씨는 今般 全鮮八景 중 제1位인 한라산 명승 중 제주 관음사에 금 일만원을 회사하여 대웅전을 □□改建키로 하고 그날 마춤 陰 7월 15일(百中) 수백명 신도 會集한 席上에 聲明한 바 제주 불교계의 일대 행운이라고 일반의 칭송이 자자하다.<sup>70)</sup>

69) 권태연 편역, 「제주 한라산 등단계 서문」, 『회명문집』(도서출판 여래, 1991), 50쪽.

70) 「제주 관음사에 일만원 회사」, 『매일신보』(1936. 9. 15).

그러나 안봉려관은 이 공사가 다 끝나기 전에 입적하였고 이 대응전을 비롯한 객실 등 세 채가 1939년 7월 20일 전소되었다.<sup>71)</sup>

안봉려관은 1937년 8월 30일 고산리 월성사 화주로 봉불식을 했던 기록을 남기고 있다.

제주도 한림면 고산리 대홍사포교당 월성사에서는 去 陰 7월 25일 오전에 봉불식을 거행하였는데 법사 鄭金烏 화주 蓬廬觀 監 高仁京 持殿 尹奉天 諸氏외 수백명의 신자가 집합하여 미증유의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sup>72)</sup>

안봉려관은 1938년 5월 29일에 입적하였다.<sup>73)</sup> 안봉려관의 입적으로 이회명은 해일 선사의 법화사 운을 차운하여 그를 기리는 비명을 지었다.

古寺跡痕幽 옛 절의 흔적 그윽하기에  
沒筇砌亂遊 이끼 낀 주춧돌 어지러히 널려있네  
誰知蓬廬觀 누가 알라 봉려관을  
芳艷水同流 아름다움이 물과 함께 흐름을  
<癸未年 七月 五日 晦明日昇 謹書><sup>74)</sup>

안봉려관은 관음사 조사전에 박만하, 이회명, 안도월과 함께 관음사의 중시조(中始祖)로 봉안되었다.

71) 「제주 관음사 회진(灰盡)」, 『매일신보』(1939. 7. 25).

72) 「고산리 포교당의 봉불식」, 『불교시보』제27호(1937. 10. 1).

73) 권태연 편역, 「제주도 한라산 법화사 니사 봉려관 비명병서(碑銘并書)」, 『회명문집』(도서출판 여래, 1991), 177~179쪽.

74) 권태연 편역, 「제주도 한라산 법화사 니사 봉려관 비명병서(碑銘并書)」, 『회명문집』(도서출판 여래, 1991), 177~179쪽.



한라산 관음사 조사전을 창건하는 취지의 글

如來가 涅槃에 드신 뒤에 부처님의 해를 거듭 빛내어 法輪을 다시 굴리는 이는 여러 큰스님들의 秘證과 妙旨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와 같이 할 것인가? … 이에 불초 이 사람이 비록 바탕이 愚鈍하여 그 일을 맡을 만한 재주가 없지마는 이제 작은 뜻을 내어 이 祖師님을 모시는 殿閣을 기념으로 창립하려한다. 겸하여 이 절의 萬下 勝林 선사는 계 정 혜의 三學이 圓明한 이로써 제주도 안의 많은 신도분들이 이 분에게 계를 받았으며 회명 일승 노스님이 섬에 와서 교화를 펼적에 크게 法會를 열어서 법을 전하고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데 여러 해를 공을 쌓은 분이다.

비구니 봉려관 스님은 이 제주도에 불교가 그림자조차 없을 때 태어나서 불법을 다시 일으킨 분이요 道月 定照律師는 봉려관 비구니와 姓이 같고 마음이 맞았으니 이분들은 모두 護法菩薩들로서 觀音寺를 성심을 다하여 창건하였으니 이 제주도에 부처님 법의 흐름을 열어준 中始祖라 하겠다.

이는 옛부터 서원을 같이한 이들이 아니고서는 어찌 이처럼 하겠는가? 우리 門徒들은 마음을 함께하고 힘을 모아서 法化를 도와 드날리기를 머리를 조아려 축원하는 바이다.

<法孫 吳利化는 삼가 기록함>75)

안봉려관은 1908년 관음사를 창건하고 1938년 입적하기까지 제주불교 활동의 중심에 있었다.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법정사 항일운동의 이력으로 인한 일제의 통제 속에서도 제주불교협회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관음사 활동을 다시 세워놓기도 하였다.

### 3. 관음사와 근대 제주불교

관음사는 제주불교를 대표하여 근대 제주사회에서 대중적 인식 속

75) 권태연 편역, 「한라산 관음사 조사전 창립 취지서」, 『회명문집』(도서출판 여래, 1991), 125쪽.

에 자리하고 있었다. 여러 기록들에서 관음사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 공립 보통학교와 제주 구좌 보통학교 학생들의 소풍 장소가 되거나 제주도청, 제주교육회 등의 주요 견학처가 되기도 하였으며, 제주도 탐방 인사들의 방문지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록은 제주인의 관음사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확인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1920년 제주도 공립 보통학교 학생들은 석가탄신일에 관음사 소풍을 다녀오다가 독립만세를 부르고 독립창가를 불러 관현의 취조를 받았다. 이는 법정사 항일운동으로 각인된 제주불교의 모습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제주보통생의 독립만세 호창 - 4월 8일에

지난 25일에 제주도 공립 보통학교에서는 생도 전부가 이날은 陰4월 8일 즉 석가세존이 탄일임으로 이 기회를 타서 해도에 창설된 관음사로 원족을 하였는데 돌아오는 길에 어린 생도들이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또 독립창가도 병창하였는데 방금 제주도 관현이 취조하는 중이라더라.<sup>76)</sup>

1924년 제주 구좌 보통학교 생도들은 관음사의 낙성 기념으로 소풍을 다녀갔다고 한다.

구좌 보교생 견학

제주 구좌 보통학교 생도 일행은 교원 백귀남씨 인솔 하에本月 11일 본도 관음사에 낙성을 기념으로 하여 散步的 遠足會□主關하여 同寺의 상황을 관찰하고 歸路 當地 域內에 校宿하고 다음날 12일 오후 1시 공립제주보통학교 全部 教授의 일체를 견학하고 기타 일반 官衙를 歷訪

76) 「제주보통생의 독립만세 호창」, 『매일신보』(1920. 5. 31); 「제주학생단 원족」, 『매일신보』(1923. 10. 12).

하얏더라.<sup>77)</sup>

1924년 관음사 낙성식은 제주도지사의 축사가 낭독되었고 중앙 불교의 이회광 등의 인물들을 비롯 수십 명의 육지부 승려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거행되었음을 앞서 살핀 바가 있다. 관음사 낙성식에는 만여 명의 제주도민이 참여하였다. 이는 창건 이후 법정사 항일운동으로 위축되었던 그간의 불교활동에 대한 제주불교의 억눌린 욕망의 표출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제주 관음사 낙성식

제주도 한라산에 설치된 관음사의 실황은 왕년 本報에 소개함과 같이 봉녀관씨의 열성과 안도월씨의 알선으로 多年 건축 중이던 법당은 이번에 낙성을 고평고 음력 4월 초파일 석가모니불의 탄생을 기념으로 성대히 낙성식을 개최한 바 廿船月씨의 개회식사가 있는 후 이회명씨의 불교 강연과 박영희씨의 역사 설명과 본사 대표 이사 이사 車升玉씨로부터 창사의 내용 및 來歷을 상세 설명하고 마에다(前田) 島司의 대리인 가토(加藤英造)씨가 출석하여 장래 확장에 대한 축사가 있어 관람자 남녀 합 만여 명에 달하여 자못 인산인해를 이루어 본도 開荒후 미증유의 대성황을 致<sup>78)</sup>

1925년 제주도청은 관음사에서 일박하고 한라산을 올랐다.

#### 한라산 探騰團

제주도청의 주최와 식은지점의 후원으로 天朗氣清의 好시절을卜하여 속히 願見이던 한라산 탐등단을 조직하고 종래 세계에 유명한 삼신산의 하나되는 이 명산을 踏破하게 됨은 실로 기이한 盛□가 될지라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사진사까지 대동하고 출발하였는데 □□ 및 일정은 如左하다더라.

77) 「구좌 보교생 견학」, 『매일신보』(1924. 5. 16).

78) 「제주 관음사 낙성식」, 『매일신보』(1924. 6. 4).

10월 16일 오후 4시 發 관음사  
同 17일 관음사 發 백록담  
□ 영실기암 오백장군을 관찰 후 堆茸□에 투숙  
同 18일 귀환<sup>79)</sup>

1926년 제주교육회는 관음사 내에서 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제주교육회  
제주교육회에서는 丹風에 好時를 점하여 松□□務議長의 召□로 本月 8일에 當地에 창설된 관음사내에 연구회를 개최하고 現下 急務인 教授에 관한 일체 의견을 交換하고 아울러서 한라산 探騰團을 조직하여 부근 名騰인 백록담을 관찰하얏다더라.<sup>80)</sup>

또한 1927년에는 제주교육회에서 전조선 하기대학을 관음사에서 개최하였다.

제주도 夏期大會  
來月 25일 조선교육회 주최의 全 조선 夏期大學은 전남 제주도에서 개최된다는데 제주교육회에서는 講說 준비에 □手중인바 참가대원은 각 □ 약 100명으로 □□로부터 □□□으로 城內出地□에 至하여 左의 일정으로 □□하리라더라.  
7월 25일 제주 城內行  
7월 26일 한라산 중턱에 있는 庵寺에서 오전 □행 오후 講話  
7월 27일 庵寺에서 講話  
7월 28 일 講話와 식물채집  
7월 29일 현지 講話와 한라산에 昇山頂을 □□하야 □□에  
7월 30일 □上小□부근에서 식물채집  
7월 31일 한라산을 經하야 제주성내에 歸<sup>81)</sup>

79) 「한라산 탐등단」, 『매일신보』(1925. 10. 25).

80) 「제주교육회」, 『매일신보』(1926. 10. 14).

제주사회는 관음사 낙성을 기념하기도 하고 불교활동과 관련 없이도 관음사를 방문하였다. 1908년 창건된 이후 관음사는 제주사회에서 제주불교를 대표하는 사찰로 대중적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V. 맺음말

안봉려관의 활동을 살피는 것은 곧 근대 제주불교의 태동을 살피는 일이었다. 1908년 김석윤과 함께 관음사를 창건한 안봉려관은 일제강점기 제주불교의 항일이력으로 인한 일제의 통제를 이겨내고 1930년대에 이르러 제주불교 인물들의 주도적 활동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이다.

1907년 대흥사에서 출가한 안봉려관은 1908년 제주도로 내려와 운대사인 김석윤에게서 가사를 전수 받는 등의 도움을 받으며 관음사를 창건하였다. 1910년 용화사에서 안거 중이던 김석윤과의 인연으로 용화사의 영봉화상과 안도월이 용화사의 불상과 탕화를 관음사로 이운 봉안하여 관음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관음사에는 해월학원이 마련되어 김석윤이 후학을 양성하였다. 그러나 제주의병항쟁 의병장이었던 김석윤의 영향으로 관음사에는 법정사 항일운동의 주역인 강창규 방동화 등이 활동하였고 후에는 김연일도 제주도로 내려와 관음사를 근거지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뒤이어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이 결행됨으로 인해 관음사는 1930년까지 일제의 통제 속에 활동이 자유롭지 못했고 안봉려관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무단한 노력을 하게 된다. 1924년 일제의 문화정치의 일환으로 종교활동이 관리되면서

81) 「제주도 하기대회」, 『매일신보』(1927. 6. 30).

제주도지사의 주도로 제주도의 행정, 사법, 경제계 인사들이 총집합한 제주불교협회가 결성된다. 제주도 불교계 인물들의 활동은 통제되는 상황이었던 탓에 중앙 불교의 이회명이 회장으로 제주불교협회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이회명은 안봉려관과 관음사와 함께 순회포교를 나서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안봉려관은 제주불교포교당을 신설하여 제주불교협회 활동의 터전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안봉려관과 관음사의 노력은 제주불교협회 활동의 중심이 되었다. 이들 노력에 의해서도 일제는 1930년에야 관음사 주지 안도월의 관음사 포교담임자를 허락할 정도로 제주불교를 불신하였다. 안도월이 관음사 포교담임자로 공식적으로 허락된 이후 관음사는 제주불교를 주도하였다. 제주불교임시대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제주불교협회와 달리 제주불교 인물이 주축이 되는 새로운 활동을 주도하기에 이르렀다.

안봉려관과 관음사의 노력은 곧 제주불교 활동의 근간이 되었다. 관음사는 불교활동은 물론 불교활동과 관련 없이도 제주도민들이 이용할 정도로 사회에 인식되어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안봉려관은 관음사를 창건하였다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아니라 근대 제주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운 인물로 조명할 가치가 충분한 제주불교사 더 나아가 제주도 역사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인물이다.

## 【 참고문헌 】

### < 문헌 자료 >

- 『관세음보살개금원문』, 제주 관음사 소장, (1925)  
『교적부』, 한국불교태고종 제주종무원 소장, (1947)  
권태연 편역, 『회명문집』, 도서출판 여래, (1991)  
김석익, 『망형석성도인행록』, 국립제주박물관 소장, (1949)  
김윤식 저, 김익수 역, 『속음청사』, 제주문화원, (1996)  
김형식 저, 오문복 역, 『혁암산고』, 북제주문화원, (2004)  
오이화, 『조사(弔詞)』, 국립제주박물관 소장, (1949)  
이은상, 『탐라기행』, 조선일보사, (1937)  
이한진 저, 김영길 역, 『매계선생문집』, 제주문화, (1998)

### < 논문 >

- 김동진, 「제주인의 3·1 운동과 그 영향」, 『제주도사연구』 창간호, 제주도사연구회, (1991)  
양진건, 「제주 유배인의 개화 교학활동 연구」, 『민족문화연구』2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한금순, 『근대 제주불교사 연구』, 제주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0)

### < 저서 >

- 사찰문화연구원, 『제주의 사찰과 불교문화』 전통사찰총서21, (2006)  
제주불교사연구회, 『근대 제주불교사 자료집』 (2002)

### < 기타 >

- 『매일신보』 『불교』 『불교시보』 『제주도지』 『조선불교』 『조선총독부 관보』

## Annbongryogwan and the revival of Modern Jeju Buddhism

Dr. Han Guem-soon  
(Jeju University)

Annbongryogwan who has founded 'Gwan Eum Temple' in 1908 was incessantly oppressed by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because of his anti-Japanese movement as a Buddhist during Japanese colonial era. By establishing 'Gwan Eum Temple' in 1908, he finally created sturdy basis of Jeju Buddhists' major activities in 1930s. He finished his practice in 'Daeheung Temple' and became a Buddhist monk in 1907. Next year, he moved to Jeju-island. He met great master Woon, in other name Kim Seok Yoon. Annbongryogwan established 'Gwan Eum Temple' in virtue of Kim's supports such as robe succession. Kim stayed in Yonghwa Temple for his practice in 1910, it enabled him to maintain a good relationship with Yonghwa Temple's Yeongbong and Andowal

Yeongbong and Andowal helped to enshrine their statue and altar portrait of Buddha in GwanEum Temple. It paved the way for foundation of 'Gwan Eum Temple'.

In 1918, as Bup Jeong Temple's anti-Japanese movement carried out, Gwan Eum Temple became under controlled by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until 1930s.

Annbongryogwan had continuous efforts to resist Japanese imperialism and resolve repressions.



In 1942 Japanese government started to control religious activities as a part of culture repressing reign. Jeju Buddhist Association was founded against suppression.

Annbongryogwan newly established Jeju Buddhist Mission which enabled setting up a base of their activities. Annbongryogwan and Gwan Eum Temple's efforts led a main stream of activities.

Being indebted to his effort, Gwan Eum Temple played a key role of Jeju Buddhism in 1930s.

Gwan Eum Temple has already been recognized and opened to public. Whether related to Buddhism or not, Gwan Eum Temple offered places for public activities.

To be focused on these point of view, Annbongryogwan's contributions for foundation of GwanEum Temple and renovation of modern Buddhism should be noticed. He is a major figure who contributed to history of Jeju Buddhism moreover he is taking some part of history of Jeju-island.

#### 【 Keyword 】

The revival of Modern Jeju Buddhism  
Jeju Buddhist's anti-Japanese movement records  
Annbongryogwan  
Foundation of Gwan Eum Temple  
Kim Seok Yoon  
Great master Woon  
Jeju Buddhist Association  
Bup Jeong Temple's anti-Japanese movement  
Yeongbong  
Robe succession

논문투고일 : '10. 11. 6    심사완료일 : '10. 12. 7    게재확정일 : '10. 12. 10

K C I